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철거 작업 중 먼지가 많이 나서 물을 뿌리라고 수 차례 말하였으나,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물을 뿌리지 않음
- 레미콘 차량이 대기하고 매연을 뿜어 대면 호흡이 곤란하여 가까운 큰길에 대기시키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구청에서 못 대게 한다고 하기에 내가 구청에 전화하라 하였더니 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정이 안 되고 끝까지 이면 도로에서 대기하였음
- 굴착공사 시작되기에 우리 건물이 오래돼서 위험하니 지반이 울리지 않게 하라고 하였으나, 바닥 전체가 암반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였음
- 건물 철거로 인한 먼지, 소음의 정신적 피해, 파일작업으로 일부 지붕이 무너지고 내부천장 5cm 균열, 레미콘트럭 매연으로 호흡곤란, 상가 앞 이면 도로 길이 막혀 2달 동안 영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건물붕괴 위험이 있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장사하다가 발가락 동상이 걸렸음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해당 공사는 2016년 4월 기존건물 철거 후 8월부터 착공하여 2017년 11월에 준공된 공사임
- 현장과 신청인 건물과의 이격거리는 약 40m 정도로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주기에는 거리가 상당함
(신청인 인접 대지에서 타 공사장이 이미 철거 및 터파기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었음)
- 현장에서는 방음벽, 분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운영 등 조치를 취하였고 터파기 공사 시 발파가 아닌 무진동 공법인 코아드릴로 작업하였음

- 당사가 공사 진행 중 신청인이 당 현장에 접수한 민원은 없었으며, 또한 성북구청에서 소음, 먼지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은 바가 없음
- 건물 철거로 인한 먼지,소음 정신적 피해
 - 기존 건물은 프리패브 1층 건물로(조립식 판넬) 철거 시 먼지, 소음이 일반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철거 전에 소음, 분진방지 헨스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건물은 직선거리 40m, 잇카페, 단독주택 등 피신청인 현장에서 3번째 건물로서 먼지, 소음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음
- 파일작업으로 일부 지붕이 무너지고 내부천장 5cm 균열
 - 인접건물 민원 관계상 흙막이 공법 및 터파기 시 무진동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피신청인 건물 주변 인접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3번째 건물인 신청인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공사중에 신청인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바 없음
- 레미콘트럭 매연으로 호흡곤란
 - 동소문로 20가길은 상업지역 내 왕복 2차로 길로 평소에도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서 레미콘트럭 매연으로 호흡곤란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하루 레미콘트럭 통행량은 10대 정도임
- 상가 앞 이면도로 길이 막혀 2달 동안 영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 신청인 건물인 철물점은 인도를 점유하고 각종 자재를 쌓아 주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수차례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피신청인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 건물붕괴 위험이 있어 집안내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장사하다가 발가락 동상이 걸렸음
 - 신청인 건물은 각종 철물 자재로 쌓여 있어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인도 통행할 수 없어서 인도에 의자 놓고 앉아 영업을 했음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신청인은 주거지역에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주택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신청인 사업장 인근이 00여대 주변이며, 상가, 사업장 등의 상업적 기능이 주로 형성된 준주거지역으로, 신청인 건물 앞은 이면도로 차량 통행과 사업장에서의 생활소음원 등으로 정온한 환경은 아님

나. 신청인 건물현황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연 면 적 : $53.75m^2$
- 규 모 : 지상1층
- 주 용 도 : 주택 및 근생
- 구 조 : 목조
- 취 득 일 : 1993.3.19
- 철물점개업 : 1999.4.30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 사 명 : 00동 호텔 000 신축공사
- 위 치 : 00동1가120-12외 1필지
- 연 면 적 : 연면적 $2,107.19m^2$
- 규 모 : 지하2층, 지상11층
- 공사기간 : 2016.8.16.~2017.11.1.
- 시 공 사 : 00종합건설(주)

라. 피신청인 소음·비산먼지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

-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 2016.7.25.
- 피해저감 대책
 - 방음벽(막)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건물 피해 평가

-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투입장비 중 가장 진동레벨이 높은 건설장비에 의한 신청인 거주지의 진동도를 예측하였음
- 피신청인의 현장에서 굴착공사 시 사용한 장비는 백호, 어스오거, 덤프트럭, 코어드릴, 펌프카, 레미콘트럭 등이며
- 굴착면과의 최단이격거리는 31.3m에서 천공기(어스오거)를 사용했을 때의 최대진동속도(VL)는 한국환경정책 연구평가원의 추정식을 사용하면 0.03cm/sec(kine)임

나. 소음피해 평가

1)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을 바탕으로 각 공종별로 주요 소음원인 건설장비의 투입일수를 산출함
- 투입 장비별 소음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건설기계류 소음특성, 2003」 자료를 참고하였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을 바탕으로 철거, 터파기, 골조공사로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주요 소음원인 건설장비의 투입일수를 산출함
- 피신청인의 공종별 장비투입내역을 바탕으로 투입장비 조합을 선정하고 소음원이 동시에 가동한다고 가정하여 합성 소음도를 산출함
- 피신청인 공사현장 중앙의 합성소음원과 신청인 건물의 수음점 높이는 모두 1.5 m로 가정하였고, 공사현장 중앙에서 신청인 건물까지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50 m로 산출함

- 신청인 건물 방향의 RPP 방음벽의 높이가 6 m 이고 신청인 건물 1층의 수음점 높이가 1.5 m임을 고려할 때 가설방음벽의 소음감쇠량으로 7dB(A)을 적용함

2) 소음피해 평가 종합의견

- 피신청인의 공종별 장비투입내역에 근거하여 공종별 장비가동 시 개별 장비가 발생하는 평균 소음도에 따라 신청인 건물까지 전달되는 합성 소음도를 검토한 결과 54.6dB(A)에서 59.2dB(A)로 검토되었음

다. 진동피해 평가

- 피신청인의 공사기간 동안 발파작업은 없었으며, 무진동공법(코아드릴)을 사용하였으며,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공사현장과의 최단거리가 약 31.3 m로서 굴착기와 브레이커 진동의 피해영향권인 26 m 및 10 m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먼지피해 평가

- 피신청인이 방음벽과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중에 바람의 세기·방향 등 대기의 흐름이나 조건에 따라 비산먼지가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도로통행 공사차량에 대한 먼지발생은 평가요인에서 제외되므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로 인해 정신적·건강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4. 판 단

- 굴착공사 시 최대 진동속도가 0.03cm/sec로, 노후화된 조적조, 목조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0.35cm/sec 이하이므로, 신청인

건물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 사업장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59.2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이하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사용장비의 진동값을 고려해 볼 때, 생활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건강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